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2 주일

제28권 2호 (가해) 2007. 12. 9

[묵상]



안 부

땅에 모래처럼 흩어져 살아가지만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숨쉬는 영혼들

서로에게 전하는 눈물 같은 안부

깊은 사랑임을 알고 서로서로 기도하리.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성시간(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매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조지 지 가보라 허동수 루스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이지미 마리아, 홍마르코와 홍안나, 방세실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정선걸 모니카, 신안나, 배일호 헨리 김종돈 스테파노
	(생)이종민 요셉, 박진숙 엘리사벳과 홍정순 세실리아 토런스 남4반 가족들,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박준구 요한 이재용 안드레아, 임송죽 헬레나, 오세원 아다나시오 가정 천광락 야고보와 남숙 리디아 가정, 최귀환 펠릭스 이진원 루시아와 김용 스테파노와 김광일 스테파노 김충섭 마틴과 정심 크리스티나 가정, 임종택 베르나르도 임종택의 자녀들, 최상만 사비노와 안젤라 가정 장애아/불우아동 도운분들,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11,1-10
화답송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영원히 평화 넘치리이다. <전례성가 59, 대림 제2 주일 가해>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끝까지 왕 하시리다.◎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여여배 여기시고, 당신은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그의 이름은 끝이 없이 기려지고 빛나는 해와 함께 길이 남으리이다. 세상의 족속들이 그이 안에 복을 받고 못백성 그를 일컬어 복되다 하리다.◎	
제 2독서	로마서 (Romans)	15,4-9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마태오 (St. Matthew)	3,1-12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24	124
봉헌	410	239,257
성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292,291
파견	Your Grace is Enough	128

8.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동녘에서 떠오른다.” 하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을 엉터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시적 표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 창조를 마치 곁에서 지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창세기도 터무니없는 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거나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풀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 하느님께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창세 1,1-2,3)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하느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려 주셨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또한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므로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전능을 떨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하느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보여 주신다.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태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태초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과 하느님의 관계가 온 인류와 하느님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상 대대로 전해 오던 태초의 이야기는 단순히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진리임을 믿게 되었다.

◆(계속 - CBCK 제공)

회개는 행실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1623-1662)은 위대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지만, 그리스도교의 사상가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세상의 삶과 신앙의 모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사색을 하던 중 1654년 11월23일 밤에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체험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체험이었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이라 생각했다. 마치 은총의 불같은 것을 체험한 파스칼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신비적 체험 후 매우 어렵게 지내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주고 신앙에 대한 글을 계속 집필했다.

그가 죽은 후 출판된 '팡세'에는 신앙적인 사색을 표현한 소중한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주옥 같은 소중한 글들이 담겨 있다. "인간의 마음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악과 비참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마다해야 한다." 파스칼은 어느 날 갑자기 체험한 신앙의 체험 후 자신보다는 하느님만을 위해 살았다.

파스칼처럼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장면이 소개된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유대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을 선포한 것이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7-8).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자기반성이나 참회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음과 정신,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회개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끊임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회개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에만 머무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워도 의미가 없다. 이제 용기를 내자. 우리의 손이 항상 어려운 사람의 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발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에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우리의 입이 늘 불만이나 불평보다 칭찬과 평화를 노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혜경 율리아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매달 첫 주일에 모으는 자선헌금 대신, 오늘 주일(9일)에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2,153단 ☞ 총 합계: 226,106단

+ 대림 시기 +

두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례주년이 시작되는 대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기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 없이는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로 향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 시기의 영성입니다.

- ◆ 백삼위 대림 판공성사: 12월 19일(수)
 - 참회예절: 오후 7시(주일학교 학생은 강당에서 진행)
 - 고백성사: 오후 7시30분부터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남가주 한인성당 대림판공 시작으로 본당의 12월 12일(수), 13일(목), 19일(수), 20일(목)의 저녁 미사가 아침미사(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성탄·송년 미사 안내 ☞

- ◆ 목요반 세례성사: 23일 오전11시 주일미사 중
- ◆ 성탄 전야 미사 : 24일(월)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 : 25일(화) 영어미사 오전9시30분, 대축일 미사 오전 11시
- ◆ 2007 송년미사 : 12월31일(월) 오후 9시

㊤ 축하합니다. ㊤

12월6일 목요일 저녁미사 중에 이수인 클라라와 이인수 다니엘이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 날은 23일 세례성사를 앞두고 목요교리반 예비자 10명을 받아들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다함께 축하합니다.

◆ 주말 교환사목과 대림 특강

본당 신부님이 성 마이클 한인성당과 주말교환 사목을 하기 위해 대림 제2 주일(8일,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셨습니다. 대신, 성 마이클 성당의 박정배 주임신부님이 우리 본당에 오셔서 토요특전 미사와 주일미사 집전 중에 대림특강을 해주셨습니다.

◆ Homeless People 돕기 3차행사

- 때, 곳: 9일(오늘 주일) 롱비치 프로젝트 어치브센터
오후 5시30분 미용서비스, 오후 6시30분 디너 제공
- 봉사자들은 오후 2시까지 천교장으로 집합
- 이발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310-283-5879 박홍룡 요셉

◆ 양업회 vs 대전회 친목 축구시합

- 때, 곳: 12월16일(주일) 오후 1시, 잔디 축구장
- 양 단체의 회원들은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 주일학교 성탄맞이 행사

- 때, 곳: 12월15일(토) 오후3시~5시, 성전
발표에 앞서 리허설이 당일 오후1시부터 있음.
- 성탄의 기쁨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자녀들이 열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기대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바이블 퀴즈도 함께 진행됩니다.

◆ 겨울방학

- 12월23일(주일)~1월22일(주일)까지
중강(16일) 개강(1월27일)

◆ 주일 학생미사는 매주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지혜	고천용	금영도	김선제	김선희	김우용	성전헌금	고천용	금영도	김선제	김선희	김우용	김원모
	김원모	김인열	김형순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김인열	김형순	남명자	노천수	민기남	박상준
	민기남	박상준	박순자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박순자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박준구	박진수
	박준구	방정복	신경훈	안재만	안태갑	오명섭		신경훈	안재만	오명섭	오진자	오태환	오호순
	오진자	오태환	오호순	원건희	유근우	유영균		원건희	유근우	유영균	유정복	유희연	윤희동
	유인섭	유정복	유희연	윤석구	윤희동	이근모		이근모	이명렬	이명자	이영석	이은록	장숙환
	이명렬	이명자	이연행	이영석	이은록	장숙환		장영진	천광락	한혁수	한혜숙	홍주희	
	장영진	정열모	천광락	최상규	한혁수	한혜숙		영희가보라					
	허정자	홍운정	홍주희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4,410							합계: \$4,400						
미사헌금: \$3,234							감사헌금: 윤석구 대림초 봉헌: 서병교 라과엘						

★ 백삼위 한국학교 소식 ★

◆ 기금마련 목주, 카드 판매

- 때 : 12월 9일, 16일 주일미사 전 후
- 품목 : 목주, 카드, 각종 액세서리 등. 많이들 사주세요!

◆ 2007년도 SAT II 한국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올림

- 차민규, 나혁구, 임상우, 김강훈 등 4명

◆ 겨울방학

- 12월23일/30일 두 주일만 방학합니다.

☎ 310-347-8765 이헬레나 청소년분과위원 한국학교담당

◆ 백삼위 골프회 12월 정기 토너먼트

- 때, 곳 : 12월22일(토), 티오프 오전 10시, 리오 혼도 골프코스(다우니), ☎ 569-3940 최기남 회장

◆ 2007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낸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각 단체 송년모임 ♫

- 성모회 : 11일(화) 오후 5시, 홍콩 가든(21718 S. Vermont Av. Torrance) 45~65세 자매님들 누구나 환영. ☎ 920-1119 성모회장 임에메레타
- 남가주 M.E. : 15일(토) 오후 6시
The Centre at Sycamore Plaza
5000 Clark Av. Lakewood
☎ 310-922-1502 오영섭 스테파노 & 오지희 요안나(백삼위 M.E. 대표부부)
- 토런스 서 2/4반 : 15일(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2반장
- 원서부부회 : 21일(금) 오후 6시30분, 성당 강당
☎ 213-446-8234 김병록 요셉 회장
- 토런스 남 4반 : 29일(토) 오후 6시30분, 고향갈비(가디나) ☎ 310-908-8823 이안셀모 반장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 9일 : 하버/카슨 2반 (국밥) \$3)
- 12월 16일 : 토런스 남 2반 (갈비우거지국) \$3)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12/7(금) 오후 7시 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12/14(금) 오후 7시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2/7(금)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12/15(토) 오후 7시,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12/4(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이석진 가브리엘 326-5867 12/14(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12/14(금) 오후 6시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325-6810 12/15(토) 오후 5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권오창 박오로 257-8416 12/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최기남 야고보 891-1527 12/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12/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12/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영석 크리스토폴 377-7063 12/14(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벌써 오셨음’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시기의 제2주간을 맞이하면서 대림환의 두 번째 촛불을 밝혔다. 오늘 대림 제2주일의 말씀주제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으로서 이사야의 예언(40,3-5)이 세례자 요한의 출현과 그가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에 의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보면 대림시기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긴장, 단식과 고행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막연한 기다림’이기보다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과 희망으로 준비하는 ‘충실한 기다림’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오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잉태, 탄생경위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1-2장)를 제외한다면 오늘 복음의 본문이 바로 마태오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복음의 시작이 세례자 요한의 출현으로 그 막을 올린다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역사에서 그 중심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신다. 그러나 그 중심의 바닥에 세례자 요한이 서 있다. 즉, 구원역사의 시간상 흐름으로 따지자면 요한이 구약(舊約)과 신약(新約)의 그 가운데 서 있다는 말이다. 요한이 곧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동시에 신약의 준비자 및 선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豫言)이 성취됨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의 핵심인 구원이 성취됨을 보게 된다.

요한 세례자가 알리는 그 시작이 오늘 복음에는 막연히 ‘그 무렵’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 무렵은 통상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려 했던 시기이다. 루카복음은 이 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루카는 세례자 요한의 출현과 요한이 예고하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가 로마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 치세 15년, 즉 기원후 27~28년경임을 밝히고 있다. 루카가 제시하는 정확한 시기에 비하여 마태오가 막연한 ‘그 무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각도에서의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 세례자 요한의 출현에 관한 정확한 시기의 언급이 이를 역사 안에서의 한 사건으로 만든다면, ‘그 무렵’이라는 표현은 역사 속의 어느 때든 마음먹는 때, 필요한 때, 그래서 오늘 복음이 성탄과 또 미구에 있을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이를 향한 복음이 되게 만든다.

세례자 요한이 출현하는 ‘그 무렵’은 결국 ‘광야’라는 장소와 기막히게 어울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행차 길을 닦으러 오는 특사가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고 믿었다.(말라 3,1) 그런데 그가 궁궐이 아닌 광야에 나타날 줄이야 누가 짐작을 했겠는가? 광야에 사는 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은 광야라는 곳에서 조달된다. 바로 낙타 털 옷과 가죽 띠, 메뚜기와 들꿀이 그것이다.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든 간에 그것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어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포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뿐 아니라 ‘독사의 족속 같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도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온다.(5-7절)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야 함이 요구된다.(8절) 이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유효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나 세례를 받았다는 증명서가 도래한 메시아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세례자 요한이 깨달았다. 요한은 아버지 즈카르야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와 영향력을 토대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그 증거로 요한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광야로 나아간 것이다. 광야는 늘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곳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다. 시끄럽고 혼탁한 세상, 매일같이 벌어지는 온갖 음주와 가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들과 계산들로 둘러싸인 머릿속,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광야와 같은 고요함을 내 안에 준비하지 않는 한,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